



[산업] SK텔레콤 불법드론 꼼짜마! '5G가드드론' 떴다 05



Economy

코스피	2103.15 (-5.60)	코스닥	726.68 (+2.36)
금리 (미국 3년)	1.48 (+0.01)	환율 (원/달러)	1183.10 (+0.50) (13일)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오슬로 총리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소경제·미래선박 등 협력

韓-노르웨이 정상회담

조선해양분야 협력 높이 평가 트로엔 의장과 성평등 논의도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솔베르그 총리는 ▲친환경 미래선박 및 수소에너지 협력, ▲지속가능한 북극 보존, ▲한반도 정세 등 폭 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2006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후 양국교역이 급증하는 점을 환영했다. 그중 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해양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규모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EFTA는 EU(유럽연합) 비회원국인 4개 유럽국가(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두 정사는 양국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각각 1건의 정부간 양해각서(MOU) 및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수소경제 분야 정책 교류 및 액화선박 등 기술 교류), ▲사회보장협정(양국 근로자 파견 시 사회보장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이다.

문 대통령은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전인 12일(현지시간)엔 트로엔 노르웨이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가 성평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일 수 있던 것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한 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가야 할 길”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길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양성평등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트로엔 의장은 “북유럽에선 ‘노르딕 모델’이란 말을 쓴다”며 “노르웨이는 여성 인력을 경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된 문화와 법을 바꾸었다. 현재 노르웨이 경제에서 여성참여율은 55%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성이 노르웨이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화답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삼성전자, 글로벌 위기 돌파구 모색

IM부문 시작으로 전략회의 돌입

삼성전자가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잇따른 악재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세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IM 부문은 이날부터 상반기 전략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다음주에는 DS가 회의를 예정했다. CE부문은 경영진들이 해외를 돌며 현지 법인 경영진을 만나 머리를 맞댄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삼성전자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글로벌 주요 경영진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다. 임원들과 해외 법인장들도 참석한다. 삼성전자 전략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김재용 기자 juk@

이번 회의는 전년과 비교해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법인장도 불참할 전망이다.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내부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불황과 신형 시장 침체, 갤럭시 폴드 등 신제품 출시와 모바일 시장 공략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예년과 같이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단, 이달 초 사장단을 소집해 일일비밀회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당국,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사후적발 → 사전예방 전환 ‘IPO대어’ 금감원 직접 심사

감리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상장준비기업 회계심사도 강화 거래소·주관사 실질책임 확대

금융당국이 기존 사후적발과 제재 위주였던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IPO) 이후 실적이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가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당국은 앞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에 대해 정밀감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은 재무제표를 수정을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된다.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할 방침이며,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IPO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상

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대폭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대상이 아닌 IPO 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으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주관사는 직접 기술한 내용이 아니라도 IPO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등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SKC, 배터리 통큰투자... 1.2조에 동박업체 인수

KCFT, SKC 자회사로 새 출발 2022년까지 동박생산 3배 확대 모빌리티 사업 핵심 동력 확보

SKC가 전지용 동박 제조·판매업체인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를 인수한다.

SKC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KCFT 지분 100%를 1조2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C는 세부 실사와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KCFT는 SKC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세부 실사 과정에서는 KCFT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KCFT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기로 했다.

동박은 구리를 고도의 공정기술로 얇게 만든 막으로 이차전지 음극에 쓰이는 핵심소재다. 전지용 동박은 얇을수록 많은 음극 활물질층을 채울 수 있어 배터리 고용량화와 경량화에 유리하다.

전북 정읍시에 생산공장을 둔 KCFT는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를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



전라북도 정읍 KCFT 공장 전경

/연합뉴스

준의 이차전지용 동박 제조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독자기술로 머리카락 30분의 1 크기인 4.5μm 두께의 초극박 동박을 세계 최장 50km 길이의 롤로 양산화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SKC는 KCFT 인수를 발판 삼아 2022년까지 동박 생산능력을 3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SKC 40년 노하우가 담긴 필름 제조기술을 더해 더 얇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SKC가 모빌리티 사업에서 성장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SKC는 지난 2016년

선포한 ‘글로벌 스페셜티 마케터’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17년부터는 모빌리티와반도체,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집중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수직계열화 생산체제 구축에도 한발 다가선 것으로 여겨진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기차 배터리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뛰어넘어 배터리 관련 수직계열화로 전방위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BaaS(배터리를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드는 전략)’를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